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실현 완수 역량 집중

민선8기 주요 현안 마무리 · 새로운 도약준비

출 범 이후 줄곧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 건설을 목표로 위기 극복을 위해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흔들림 없이 달려온 민선8기 군산시는 새로운 도전과 혁신적 정책을 추진하며, 대한민국 미래 신산업 육성의 중심지로 확고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특히 취임 당시 “경제 위기를 빠른 시일 내 극복해 시민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시정에 매진하겠다”던 강임준 시장의 약속들이 하나둘 현실화 되면서 군산시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형 산업구조로의 개편과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 등 가시적인 성과들을 나타내며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밝은 희망의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

시민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숨 가쁘게 달려온 민선8기가 어느덧 마무리를 향해 가는 2022년, 그동안 다져온 변화의 기틀을 바탕으로 주요 현안사업의 성공적 마무리와 함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 가는 군산시의 신년계획을 살펴본다.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



중학생 진로체험 활동 지원

**미래차 등 중심 신성장산업 육성
군산사랑 상품권 지속 발행 등
올해도 골목상권 지원 확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앞장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체계 강화
작년 신설 아동보호팀 내실화**



에 앞장서 나간다

◇우수한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및 농어민의 소득증대 도모

농수산업 진흥을 위해 친환경적인 우수한 농수산물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및 판로개척으로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간다.

소비자 수요에 대응한 로컬푸드 기획생산과 전략작목 육성지원을 강화해 생산품목 다양화로 농업의 체질을 개선해 나가고, 푸드플랜을 통한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해 먹거리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연계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판로를 확대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수산분야에서는 수산물 유통 및 판매시설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체질 개선에 나서고, 수산 가공식품 시설 확충으로 수산 산업의 발전을 꾀하게 된다.

올해 해수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해삼·꽃새우 수산물 산지저점유통센터(FPC)’를 2023년까지 조성에 위원을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 제품개발로 해외 판로를 확대해 나간다.

소비시장의 우위를 선점하고 영세한 지역 수산업 체질을 개량하기 위해 추진한 ‘재민금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는 국가예산 14억이 확보됐으며,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과 가공 유통과정 자동화를 통해 우리시가 도내 수산 유통·가공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와 소통, 현장중심의 행정에 중점

군산시는 시장운영에 있어 무엇보다도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조해왔다.

이를 위해 비대면 시대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등 온라인 SNS를 통한 일대일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시장과의 북돋움’, ‘읍면동장 공감대화’ 등 시민들과 격의없이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주요 현안사업과 민원사항은 현장행정을 통해 시민의 불편이 무엇인지 직접 듣고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강임준 시장은 “2022년은 군산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으로 위기극복해 온 민선8기 마지막 해이자 민선8기 시정이 새롭게 출발하는 또다른 시작의 해”라며 “그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주요 현안사업들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미래 신성장산업 집중 육성으로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 확고히

먼저 군산시는 재생에너지와 미래차를 중심으로 한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지난 12월 본격적인 사업운전에 들어간 시민참여형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 시민펀드 모집을 완료해 발생하는 수익을 시민이 함께 공유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추진하게 될 수상태양광 발전과 풍력발전까지 시민참여형으로 확대 추진해 명실상부한 에너지 자립도시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2020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올해 동부권에 이어 내년에는 시내권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해 군산 전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시민 모두가 골고루 누리는 에너지 복지를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및 ‘군산 상생형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전기차클러스터 조성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특히, 올해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군산형 일자리사업’은 중견중소 전기차관련 협업기관 구축, 산업을 자율주행 스키이트 플랫폼 개발 등 R&D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아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지원 확대

코로나19로 장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지원도 더욱 확대해 나간다.

소상공인 경영인전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군산사랑 상품권’은 올해에도 5,000억 규모로 지속 발행할 예정이다. 결제 수단을 보다 다양화 해 사용의 편리성을 도모해 나가고 코로나 시대에 전국적 수범사례가 된 ‘배달의 명수’는 시스템 개선 및 카테고리 확장 등 고도화 개발을 통해 새롭게 리뉴얼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소상공인의 비대면 시장 진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소상공인 물류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오는 3월 착공할 예정으로 소상공인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고, 낙후된 원도심의 상권 자생력 강화를 위한 상권리모델링사업은 올해 3년차 사업을 시행해, 신영시장·중앙상가 등 구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게 된다.

한편, 올해 완공예정인 ‘전북 사회적 경제혁신타운’을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기업의 인적·물적 거점화를 추진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통합지원 체계와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해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신규 관광콘텐츠 발굴로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조성

문화관광에 있어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과 신규 관광콘텐츠 발굴로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조성에 합심 계획이다.

지역의 풍부한 문화적 자산을 활용해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고,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해 온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그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지난 12월 예비문화도시로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힐상 모음, 가지 나눔, 문화공유도시 군산 을 비전으로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문화 전문인력, 문화예술가 등이 문화도시에 핵심역량으로 자리함으로써 5년간 200억원이 투입되는 문화도시 본(本)도시로 최종 지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국비가 확보된 ‘군산 선교역사관 건립사업’은 군산 선교역사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시민 자긍심 고취는 물론 신규 문화·관광 콘텐츠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2월 착공예정인 ‘월명산 전망대 조성사업’은 시내 전경과 서해 낙조를 조망할 수 있는 지역의 또 하나의 명소가 되어 인근 시간여행마을 및 2022년 말 완료 예정인 동백대교 경관조명과 연계해 관광 시너지 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2

2022

謹賀新年

위대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김제

담대하게 나아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김제시